

The 13th Asian-Pacific City Summit Special Edition

제13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

보고서

한국어



CONTENTS

서미트개요	2
프로그램	3
프레세션	5
오프닝세션	6
유엔해비타트강연	13
국제기관강연	15
기업강연	17
분과회	20
유엔해비타트세션	30
지식세션	32
클로징세션	36
참가도시대표자	39
사이드이벤트	42
관련사업	44
참고자료	45
협찬기업일람	50

서미트 개요

회의명 : 제 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특별판

테 마 :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

개최기간 : 2021년 10월 26일(화)·27일(수)

개최형태 : 비대면 화상 회의

주 최 : 후쿠오카시,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후 원 : 총무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UN홍보센터(UNIC), UN개발계획(UNDP),
일반 사단법인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재팬(GCNJ),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
구(JICA)

참가도시 : 18개국 40도시



프로그램

● 1일차 : 10월 26일(화)

메인 프로그램

12:20-12:50	프레제션 (아시아 태평양 어린이 회의 in 후쿠오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린이들로부터의 메시지
13:00-13:50	오프닝 세션 ◆개회 ◆주최자 인사 ◆참가도시 소개 ◆사진 촬영
13:50-14:10	유엔 해비타트 강연 ◆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유엔 해비타트 (비디오 메시지) ◆Rafael Tuts, Director of the Global Solutions Division, 유엔 해비타트
14:10-14:40	국제기관강연 ◆Dechen Tsering, Regional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ziza Akhmouch, Head of City Division,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OECD
14:40-15:00	브레이크 타임
15:00-15:15	기업강연 1 Shinabe Kazuhiro, Managing Executive Officer, General Manager of Environmental Solution Division, 주식회사 구보타 「구보타의 대처~사회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향하여」
15:15-15:30	기업강연 2 Fukuda Kazuyoshi, Managing Director, Overseas Operation, Environmental Solutions Sector, JFE엔지니어링 「Just For the Earth ~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JFE의 환경, 물 인프라」
15:30-17:10	유엔 해비타트 세션

사이드 프로그램

17:30-18:45	후쿠오카 외국인 학생 지원회 (공제)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 주최 「유학생을 위한 창업, 취업활동 토크 세션 2021」
-------------	---

● 협력 단체



九州大学
KYUSHU UNIVERSITY



OECD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PRESENTED BY
WORLD BANK GROUP

프로그램

● 2일차: 10월 27일(수)

메인 프로그램

10:30-12:30	분과회A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생활 이노베이션」
10:30-12:30	분과회B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12:30-13:00	브레이크 타임
13:00-15:00	분과회C 「뉴 노멀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조류」
13:00-15:00	분과회D 「신시대의 지속 가능한 투어리즘」
15:00-16:30	지식세션 ◆규슈대학 세션 ◆OECD 세션
16:30-17:10	클로징 세션 ◆분과회 보고 ◆회의 총괄 ◆폐회

사이드 프로그램

11:00-12:30	국토교통성 주최 「일본과 아시아의 국토 장기전망」
12:30-13:50	세계은행 동경 개발 러닝센터 주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도시 만들기」
14:00-15:00	후쿠오카시 주최 「후쿠오카 방식이란 ~저비용 친환경 매립 기술~」

프레세션

■ 아시아 태평양 어린이회의 · in후쿠오카(APCC) 발표

APCC는 시민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쿠오카의 국제화와 그 앞에 있는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약 2주간, 「브릿지 여름 캠프」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30개 나라와 지역에서 200명이 넘는 11세 아이들을 후쿠오카로 초대하여 가정·학교·지역을 포함한 후쿠오카의 도시 전체에서 교류를 펼쳐 나갑니다. 또, 후쿠오카의 아이들을 약 1주간 해외에 파견하는 「브릿지 챌린지 트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년간의 역사 속에서 후쿠오카 초빙은 1만 2,000명, 호스트 패밀리는 총 7,000가정, 자원봉사자는 8,000명, 해외 파견은 3,7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름캠프, 챌린지 트립은 실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에서의 「브릿지 가상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린이 130명과 후쿠오카의 어린이 100명이 참가 해, 7회에 걸쳐 국경을 넘는 온라인으로의 교류에 의해 우정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Fuji Masaomi

Operating Director,
Asian-Pacific Children's Convention in Fukuoka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린이들로부터의 메시지

APCC 「브릿지 가상 여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4명이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의 참가자분들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프닝 세션

오프닝 세션

■주최자 인사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만, 제13회 서밋을 무사히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최를 위하여, 진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는 오랜 교류의 역사에 더해, 도시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진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은, 수장이 도시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서, 1994년에 후쿠오카시의 제창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12회의 수장회의를 개최하여, 과제와 해결책 공유를 도모하고,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을 전체 테마로 삼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 도시는 도시 개발과 시민 생활, 관광과 같은 넓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추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최전선에 맞서 있는 도시는 시민의 요구와 요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세계를 변혁해 나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틀간, 전문적인 지견을 가진 분들의 강연과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의사를 가진 리더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실시됩니다. 이번 서밋에서 많은 지견과 노하우가 공유되어 도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서밋에는 과거 최대인 40개 도시가 참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직면하는 도시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 도시 네트워크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함께 위기에 맞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서로의 교류가 깊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Takashima Soichiro

Mayor of Fukuoka City

오프닝 세션

■주최자 인사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풍우, 산불 등 극심한 자연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혼란과 사회 불안, 폭력, 심지어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해 9월에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깨어나야 한다. 우리들은 나락의 문턱에 서 있고,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위협받고 분단되고 있다. 우리는 생애 최대의 위기의 연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가맹국에 호소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이, 기후변화 대책은 절박한 최대의 과제이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책과 적응책을 통합, 조화시켜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COP26 등의 글로벌한 장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과제에 대처할 때 상향식, 하향식과 같은 쌍방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더믹에 의해, 우리의 공통 글로벌 어젠다인 SDGs에 후퇴와 지연이 보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시는 SDGs 달성을 향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풍요롭고 평등하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행동을 가속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은 SDGs의 현지화입니다.

우리는 본 서미트의 초점의 하나로 SDGs의 현지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유엔 해비타트 세션은 SDGs의 자발적 자치체 리뷰(VLR)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VLR은 4년 전에 시작된 이래,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번 서미트에 참가한 도시 여러분께서도 꼭 이 활동에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본 서미트가 참가하시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원하며,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Koresawa Atsushi

Regional Representative,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오프닝 세션

■ 회원 도시 대표 인사

존경하는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님, 동료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디오로나마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에 참가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저우시 인민 정부를 대표해서, 또 제 개인으로도 서밋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 서밋에 참가하는 도시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밋 인사에 즈음해서, 2018년8월의 기억이 생깁니다. 오래 전부터 친구인 다카시마시장님의 초대로 후쿠오카시를 방문하여, 제12회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후쿠오카시의 아름다움과 시민의 따스함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세계 공중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회원 도시는 일치단결하여, 서로 지원하고, 손잡고 코로나와 싸우며, 인류는 모두 운명 공동체라는 이념을 증명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워,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지금,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을 주제로 서밋이 개최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의론한다는 것은 정말로 서밋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기타의 중요 도시의 경제 발전을 높인다」라는 사명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며, 세계의 도시가 함께 위기에 맞서는 것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광저우는 중국의 중추 도시, 국제적인 무역과 소비의 중심이며, 광둥, 홍콩, 마카오 그레이트 베이エリア의 핵이 되는 도시입니다. 광저우는 감염 대책을 컨트롤하고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코로나와의 싸움을 전력으로 지지하면서, 공장과 생산을 복구시켜, 무역과 비즈니스 재생을 추진하여, 경제 회복에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저우시에서는 1800만명 이상, 합계 3600만회의 백신 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의 광저우시의 GDP성장률은 2.7%이며, 2.5조 인민원(약3900억달러)를 넘어, 2021년 상반기는 13.7%의 증가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 각 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계63개 도시에 약700만개의 마스크와 약1만개의 비접촉형 체온계를 기부해 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130회 광저우 무역회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성공리에 개최됐고, 국내외 약26000사가 참석하여, 중국의 감염증 대책과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전략적인 성과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는 감염이 되풀이 되고,

경제 회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성쇠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일치단결만이 전 세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개방성과 이노베이션 정신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진 도시의 도시 경영의 지혜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은 도시간 연계에 중요한 플랫폼임과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광저우는 회원 도시와 함께 서밋의 테두리 안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보다 유연성높은 도시 만들기를 강력히 지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 회복에 더욱 공헌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시진핑 주석 말씀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는 팬더믹에서 회복되어서, 더욱 강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간 협력이라는 햇볕이 코로나가 가져 온 암운을 불식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원 도시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을 기원하며, 세계 경제가 하루 빨리 본연의 궤도에 되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광고가 됩니다만, 11월8일부터 13일까지 광저우시 중국 인민 대외 우호협회, 도시, 자치체 연합(UCLG), 세계 대도시권 협회(METROPOLIS)가 공최하여, 제13회 세계 대도시권 협회 세계대회, 글로벌 메이어즈 포럼, 제5회 광저우 국제도시 이노베이션 아워드 수상식이 광저우시에서 개최됩니다. 「Moving Forward in Partnership and Modernizing Global Urban Governance」를 주제로 의론이 전개됩니다. 동료 여러분, 내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참가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각 회원 도시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en Guohui

Mayor of Guangzhou City

오프닝 세션





For Earth, For Life
Kubota

ON YOUR SIDE

Solving the issues of food, water and the environment has been Kubota's conviction since its founding in 1890. With one heart with all people, we will continue to progress one step at a time, for tomorrow.

KUBOTA Corporation



강연

유엔 해비타트 강연 I

■ 유엔 해비타트 사무국장 비디오 메시지

아시아 태평양 여러 도시의 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케냐 나이로비에 서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말레이시아의 페낭시와 세베랑 프라이시에서 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많은 곤란에 대처하는 시장님들한테 특별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우선 오랜 기간, 유엔 해비타트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본 서미트를 개최하는 후쿠오카시 다카시마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오카시와 유엔 해비타트의 연계는 1997년 일본 정부와 후쿠오카현의 지원 하에 후쿠오카시 중심부에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는 일본에서 유일한 유엔 지역 본부이며, 규슈에서 유일한 유엔 기관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와 국토계획에 관련된 국제 가이드 라인」에서 후쿠오카시의 활동 방식을 소개하며 말레이시아,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인도에서 친환경 폐기물 처리방법 「후쿠오카 방식」을 도입, 베트남, 라오스, 케냐의 지하 저수 방식「다메토티도」의 채용 등 후쿠오카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해 왔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의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도시는 그 최전선에서 있습니다. 시장과 도시의 리더가 24시간 체제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큰 과제들입니다.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의 달성을 위해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SDG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가 SDGs의 거의 모든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의 몇십 년의 노력의 성과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SDGs는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건강, 환경, 사회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공통의 목표이자,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DGs의 달성을 향한 대처를 가속하는 열쇠는 현지화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다른 유엔 기관 및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ESCAP), 도시와 지방 자치체의 단체, 기타 수 많은 파트너와 연계해, SDGs의 현지화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번 서미트에서는 「자주적 자치체 리뷰(VLR)」를 테마로 유엔 해비타트 세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서미트가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서미트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유엔 해비타트

유엔 해비타트 강연 II

유엔 해비타트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과 적절한 거주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SDGs목표 11「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기」가 정해진 것은, 인간의 거주 환경과 도시에 초점이 맞춰진 역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2016년「New Urban Agenda (NUA)」에서는「사회 포섭성」,「모든 사람의 번영」,「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발전」이라는 혁신적인 코미트먼트가 발표되어, 목표 달성에 대한 이정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NUA,구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역 가이드 라인 액션플랜을 작성하고, 기타 유엔 기관과 시민 단체와 민간 기업과 협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97개국에서 1200만달러 상당의 78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의 약4분의1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엔 해비타트는 펜더믹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1700개 도시의 데이터에 기초한 가이드언스를 작성, 도시형태, 도시기능 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 도시경제 강인화, 다른 레벨의 정치 조직 간에서의 법적 연계의 4분야에 대해 제언을 실시했습니다. 펜더믹에 대해 도시가 보다 더 강인해지는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Gs 진보는 늦어지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SDGs의 현지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는 욕구에 맞춘 지역마다의 전략을 가지고, 지역에서의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른 유엔 기관과도 연계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 및 지역 정부의 주도하에 재해에 강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네팔에서는 토지 관리나 안정성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토지 기록이나 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에서는 안전한 지역이 적고,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엔 해비타트의 전문 기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메이저즈 아카데미,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과 같은 지역의

대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처가 지역에 뿌리내린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상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열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프로젝트나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Rafael Tuts

Director of the Global Solutions Division,
유엔 해비타트

국제기관 강연 유엔 환경 계획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에 기초한 접근법」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일변시켰지만, 기후변화의 진행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의 감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CO2배출량은 감소했지만, 그 후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에너지 수요의 약3분의2,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거주자수는 2030년에 28억명, 2050년에는 35억명에 달하며, 게다가 향후 2050년까지는 신흥국, 개발 도상국의 도시는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전 세계 저장량의 40%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새로 건설해, 관광객 증가수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은 기존 시스템과 자원을 압박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악화시킵니다. 도시가 초래하는 영향은 이제 도시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2,300만명, 3m상승으로 5,200만명이 위기에 빠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1m 상승으로 280만명, 3m상승으로 510만명이 주거를 잃고, 베트남에서는 1m 상승으로 모든 인구의 11%, 3m상승으로 26%가 침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상승과 심각한 히트 아일랜드 현상에 의해서, 많은 도시에서 냉방 사용이 늘어나며, 전력 수급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Ecosystem-based Approaches : EbA)」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CO2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 유지, 수복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뿐만 아니라,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억제, 홍수 리스크의 감소, 대기오염의 개선, 소음의 저감,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통한 건강 문제 개선 등, 도시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과 태국에서의 「스폰지 시티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ABC 워터스 프로그램」, 인도 케라라주의 「DRR 프로그램」 등 EbA가 시험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UNEP는 유엔 환경 총회에 의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의무화되어 있고, 각국·지역에서 EbA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유연하고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유연하고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과 그 생활을 지키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정책 입안자, 전문가, 연구기관, 민간 섹터 등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Dechen Tsering

Regional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국제 기관 강연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2021년에는 5.6%, 2022년에는 4.5%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복 상황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 조사에 의하면, 대규모 도시일수록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교외와 비교해서, 2배나 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국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백신 접종률에 격차가 있다는 점, 도시부 빈곤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의료 인프라와 경제적 격차가 감염 확대의 요인이 된 점, 사망자수와 대기오염 수준과는 관련이 있고 기후변화 문제와 건강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지역 간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고, 고용 회복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이러한 지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는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65%의 도시가 재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공공 투자 수준 회복에 10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영향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팬데믹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원격 근무 혁명이 있었습니다. 도시부는 교외에 비해 약 13% 재택 근무 실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뉴 노멀에서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고, 중심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한 사용 안하게 된 사무실 등의 도시

건축물을 보다 다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이 향후 중요해질 것입니다.

도시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기업의 고용 유지, 푸드뱅크, 집세 면제, 공중위생의 유지, 쓰레기 수집, 공원 관리와 같은 기초 서비스의 지속, 노숙자에게 주택 설비 제공, 행정 압류의 연기, 문화 예술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시책에 더해, 도시는 장기적인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브뤼셀과 파리처럼 도시 디자인과 공공 공간을 재검토하고, 도시 인프라와 시간과의 관계성을 재정의하는 「크로노 아바니즘」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남을 수도 있고, 교외로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의 중규모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나리오나, 높은 스킬을 가진 노동자의 이주처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도넛 효과」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혼재하는 가운데에서 도시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Aziza Akhmouch

Head of City Division,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OECD

기업 강연 I 주식회사 구보타

「구보타의 대처~사회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향하여」

구보타의 원점은 1890년 창업 당시 만연했던 콜레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도용 철관을 개발한 데 있습니다. 이후 130년 이상에 걸쳐, 식량, 물, 환경분야에 있어서 과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창업 이래 일관하여, SDGs에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보타의 많은 제품에서 물, 환경분야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처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선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공헌하는 내진형 덕타일 철관입니다. 재해 발생시, 생활용수, 의료용수, 소화용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구보타는 세계 최초로 내진형 덕타일 철관을 개발했습니다. 이 철관은 매우 고도의 이탈 방지 기능을 지니며, 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고,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도 그 신뢰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서해안 등 많은 도시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환경」에 기여하는 물 처리막을 이용한 하수 처리방식 「MBR」입니다. 처리수는 그대로 화장실의 플러싱이나 수목에의 살수 등으로 재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종래와 비교하여, 용지 면적을 50% 이상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의 채용 이후, 세계 각지에서 채용되고, 납품 건수는 6,000건 이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도시 배수 분야에서 활약하는 배수 펌프차입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가 열쇠가 됩니다. 배수 펌프 차량은 초경량 수중 펌프와 발전기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차량에 탑재하고 있어, 뛰어난 기동성과 큰 배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약400대가 배치되어, 2011년 태국의 대홍수 때는 10대가 현지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의 컨트롤은 도시의 공통 과제이고, 구보타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는DX에도 주력하여, 농업·상하수도·관개 분야의 제품, 서비스에서 IoT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구보타 스마트 인프라 스트럭처 시스템 「KSIS」, 농업 분야에서는 구보타 스마트 애그리 시스템 「KSAS」를 개발해, 각종 인프라를 원격으로 감시, 진단하고 최적 운전화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예방 보전에 의한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구보타 창업자인 구보타 곤시로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 그 물건에는 올바른 의미에서



Shinabe Kazuhiro

Managing Executive Officer,
General Manager of Environmental
Solution Division,
주식회사 구보타

의 상품 가치를 구현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신념은 그룹 4만명에 지금도 계승되고 「구보타 글로벌 루프」에 제시된 식량, 물, 환경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글로벌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강연 II JFE엔지니어링 주식회사

「Just For the Earth ~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JFE의 환경, 물 인프라」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폐기물, 상하수도, 에너지, 교량, 재활용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글로벌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초의 폐기물 소각 발전 플랜트에서는

일본 환경성에 의한 JCM체계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남양 공과 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용융 슬래그화하고, New Sand형태로 재이용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최대 처리 규모를 자랑하는 엔사 하수 처리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파라나케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필리핀에서 많은 물 처리 플랜트를 건설해 온 실적이 있고, 마닐라 워터와 마닐라의 프로젝트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경험은 각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고, 다른 나라의 프로젝트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물 사업의 새로운 확대를 목표로 대기업을 공급 사업자인 BIWASE,사와의 업무 제휴 아래, 정수장의 EPC 및 O&M 사업을 확대해, 베트남의 SDGs 달성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68년 도쿄에서 최초의 소각시설을 건설한 이래, 일본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플랜트를 건설해 왔습니다. JFE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체제로 세계 각국의 폐기물 처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JFE 산하에서 경험이 풍부한 스탠다드 케셀사가,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과 JFE와의 합작 회사인 톈우케츠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독일의 기술과 일본의 기술을 베스트 믹스 한 후, 인도의 엔지니어링 거점에서 설계, 제작, 각국에 있는 거점에서 건설공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폐기물 처리 방식은 쓰레기 소각 발전(Waste to Energy-WtE)입니다. 최신의 WtE 플랜트의 배기가스는 매우 안전한 것이지만, 최근, CO2 그 자체가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년에 걸쳐서 폐기물을 새로운 화학 제품으로 변환하는「Waste to Chemicals -WtC」에 임하고 있으며, BOT 및 DBO 스킴의 양쪽에 있어서, 5가지 폐기물을 합성 가스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가스화 기술과「Syngas-to- Chemicals」를 조합시키므로써,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와 같은 카본 뉴트럴 제품을 생산할



Fukuda Kazuyoshi

Managing Director,
Overseas Operation, Environmental
Solutions Sector,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수 있습니다.카본 뉴트럴은 종래의 폐기물 처리에 더해, 가까운 장래, 당사의 코어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JFE, 그 것은 “Just For the Earth”이며, 안심,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힘차게 지탱하여, 그 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Foundation of Life

Working towards a prosperous and sustainable society for all people.

Preserving our planet's gifts to humanity for future generations.

At JFE Engineering, we have decades of experience in infrastructure projects, ranging from design and construction to operation and maintenance.

As a global engineering company, this wealth of experience and our extensive portfolio allows us to directly addres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roblems our world face today.

Our mission for the Foundation of Life remain unchanged, as we continue to provide the optimal solutions to our customers around the globe.



JFE Engineering Corporation
Just For the Earth



분과회

분과회 A

테마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생활 이노베이션」

● 모더레이터



Arai Yuko

Urban Specialist, World Bank

약력

세계은행의 도시, 방재, 강인성, 토지 글로벌 프랙티스(GPURL)에 도시개발 전문관으로 재직.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도시 개발 프로젝트(NUDP)와 도시 정비 연구소(CPL) 프로젝트를 포함해, 주로 동아시아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 고령자에게 친절한 도시개발의 조언이나 분석 프로젝트의 국제 평가를 견인하고, 도시 공간의 유니버설 액세스 정비를 통괄하는 베트남 확대 도시 향상 프로젝트도 공동 견인함. 세계은행 입사 하기 전에는 동아시아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에서 민간 도시 개발 기획자로 종사함.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도시계획) 및 도쿄 대학에서 석사학위(토목공학·수문학)를 취득.

● 참가도시



후쿠오카시 / 일본
Arase Yasuko
Deputy Mayor



자카르타 특별시 / 인도네시아
Nasruddin Djoko Surjono
Head of the Regional Planning Board
of Jakarta



타를라크주 / 필리핀
Susan A. Yap
Governor



푸켓시 / 태국
Onphailin Trakoonpariphon
Deputy Mayor



싱가포르
Eng Kian Ong
Director, Centre for Liveable Cities



주식회사 구보타
Miura Teruo
General Manag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t.

【분과회 보고】

1. 도시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 ①코로나 사태는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고용과 교육, 의료 등에 내재하던 과제들이 표면화되었다. 다시 한번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포섭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 ②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활용은 유효하지만, 예를 들면 정보 격차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약한 주민 층으로의 침투에는 장벽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생활 서비스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새로운 시점과 사고방식

- ①「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살기 좋은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와 도시 설계를 해 나감으로써 모든 주민한테 살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 ②AI와 빅데이터 활용, 차세대를 위한 능력 개발과 온라인 학습, 그리고 원격 의료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구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3. 대처의 방향성

- ①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충족된 상태가 되는 웰빙의 실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 ②코로나 사태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주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과 함께 사회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포섭적인 주민 서비스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기능성, 시스템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생활 이노베이션의 실현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정책 양쪽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분과회 B

테마 :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 모더레이터



Kato Makoto

Director, Business Department Head, Chief Researcher
Overs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Japan

약력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를 거쳐, (일사) 해외환경협력센터 (OECC)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협력에 종사. 개발도상국에서의 법제도, 대책계획 정비·실시, 기술도입 프로젝트 형성에 주력함. 2004년부터 유엔 기후변화 골조 조약에서의 일본정부 교섭단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교섭에 참가. 파리협정 교섭에서는 도상국의 능력 구축(11조) 등에 대해서, 리드 니고시에이터를 맡았다.

● 참가도시



후쿠오카시 / 일본
Nakamura Eiichi
Deputy Mayor



사가시 / 일본
Ito Hiromi
Deputy Mayor



군산시 / 대한민국
Kang Im June
Mayor



구이양시 / 중국
Liu Lan
Vice Mayor



구마모토시 / 일본
Onishi Kazufumi
Mayor



하이퐁시 / 베트남
Nguyen Thi Bich Dung
Deputy Director of Hai Phong city'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기타큐슈시 / 일본
Umemoto Kazuhide
Deputy Mayor



이포시 / 말레이시아
TPr. Tuan Haji Mohd Zainal bin
Abdul Hamid
Director of Town Planning Department
Ipoh City Council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Takahashi Gen
General Manager, Overseas
Administration Department

【분과회 보고】

1. 도시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 ①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 재해가 증가 및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함께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리스크 또는 장애가 되고 있다.
- ② 환경 문제는 재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 등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와도 큰 관련이 있다.
- ③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부흥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도, 경제 합리성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
- ④ 2016년에 발효된 파리협정에서는, 종래 중앙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된 기후변화 문제에, 도시도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되고,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도시의 역할이나 책임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명확하다.

2. 새로운 시점이나 사고방식

- ① 향후 환경대책을 제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 ②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처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3. 대처의 방향성

- ① 파리협정 등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도시의 주체적 관여 강화를 바탕으로, 도시로서의 탈탄소 목표설정 및 액션플랜을 책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액션플랜은 도시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게 된다.
- ②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해서는 도시가 하나의 사업체로서 대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와의 광역 연계와 기업과 주민을 끌어들이는 그린 리커버리의 무브먼트를 일으켜 나갈 필요가 있다.
- ③ 환경문제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도시는 국제적인 회의나 파트너십을 활용한 정보 발신 및 노하우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과회 C

테마 : 「뉴 노멀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의 새로운 조류」

● 모더레이터



Aizawa Nobuhiro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Kyushu University

약력

2006년 교토 대학 대학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연구 연구과 수료.
박사(지역 연구) 동남아시아 정치, 도시화와 정치,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 전문-정책 연구대학원대학, 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14년부터 현재. Cornell University 객원연구원, Chulalongkorn University 객원연구원, Wilson Center Japan Fellow를 역임. 규슈 대학 Q-AOS에서 mega region 센터장을 겸임. 저서로 『화인과 국가』(서적 공방 하야마) 등.

● 참가도시



후쿠오카시 / 일본
Mitsuyama Hiroaki
Deputy Mayor



대련시 / 중국
Hu Bingxia
Vice President of Dalian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오이타시 / 일본
Kudo Akira
Deputy Mayor



포항시 / 대한민국
Kim Byeong-sam
Deputy Mayor



첸바이시 / 태국
Vorapan Suvonthanatip
Advisor to the Mayor



아랍 수장국 연방 / 두바이시
Dawoud Abdul Rahman Al Hajri
Director General

【분과회 보고】

1. 도시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 ①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노동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지금까지 도시는 도시의 접속성(connectivity)과 이동성(mobility)을 높이는 데 힘써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동 제한(immobility)이 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도시는 이러한 뉴 노멀에 있어서의 주민의 새로운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시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갈 건지, 어떻게 도시 공간을 재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조정하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② 향후의 전망으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교훈을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기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고용을 지키는 것은 이미 큰 과제가 되었지만, 더 큰 과제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도시의 존재 양식을 과감하게 재구축하고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도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한다.

2. 새로운 시점과 사고방법

- ① 급격한 이동 제한은 특히 통신과 물류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이 기술 혁신은 도시 개발에서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린프로그(leapfrog) 전략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부흥을 지향하는 도시는 이러한 강점을 가진 신흥 기업과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 ② 또, 이동 제한은 예기치 않게 뉴 노멀에 대응한 도시 공간의 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 공간을 보다 개방적으로, 보다 녹화하여 재구축하는 것은 주민에 의한 포섭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되어 있다. 도시 시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도, 도시내의 이동은 필요하며, 도시 공간의 녹화는 중요하다.
- ③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도시는 도시 만들기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제 해결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상이나 주민활동,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 양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나가야 한다.

3. 대처의 방향성

- ① 이제 「회복력」(resilience)은 도시 만들기의 근간인데, 이는 고품질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활, 고용의 회복력도 의미한다. 도시는 인류가 감소했을 때에는 물류에 투자를 시프트해서, 균형을 잡는 등 유연한 대응으로 리더쉽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위기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② 파트너십은 도시의 리더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대학교, 시 민과의 연계를 넓히고 심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
- ③ 다양성은 도시의 근로 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새로운 규범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뉴 노멀을 짚어질 어린이와 젊은이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웰빙이 도시의 살기 좋음과 회복력, 그리고 도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하게 될 것이다.



분과회 D

테마 : 「신시대의 지속 가능한 투어리즘」

● 모더레이터



Suzuki Hiroko

Deputy Chief, UNWTO Regional Support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약력

2000년 국제협력은행 입사. 아시아제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융자 업무, 아시아제국 정부에 대한 융자 업무(엔타이드 론) 등에 종사. 2009년 경험자 채용으로 국토교통성에 입성. 건설업, 해운업의 국제 전개 지원 외, 내각관방에서 아시아제국의 경제-산업 정책 등의 정보 분석 업무에 종사.

2018년 7월부터 국토교통성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주일 사무소에 파견. 영국 런던 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석사학위(Msc.in Local Economic Development)를 취득.

● 참가도시



후쿠오카시 / 일본

Yoshida Hiroyuki

Chief Executive, Economy, Tourism & Culture Bureau



타이저우시 / 중국

Gu Ping

Vice Mayor



가고시마시 / 일본

Shimozuru Takao

Mayor



미야자키시 / 일본

Kono Taro

Vice Mayor



나가사키시 / 일본

Taue Tomihisa

Mayor



비엔티안시 / 라오스

Phoukhong Bannavong

Vice Mayor



블라디보스토크시 / 러시아

Zhuravel Yuri Grigorievich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다낭시 / 베트남

Tran Phuoc Son

Vice Chairman

【분과회 보고】

1. 도시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 ① 관광 산업은 성장일로를 따라, 세계 전체의 GDP 및 고용의 10%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의 국제 관광객 도착수는 전년 대비 74%감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이 경향이 현저하며, 감소 폭은 83.5%에 이르렀다.
- ② 관광 산업은 폭넓지만 외적 영향을 받기 쉽다는 취약성을 가진다. 코로나 사태는 관광 시설이나 숙박시설에 그치지 않고 요식업이나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뒷받침하는 제1차 산업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관광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 사태로 약1,억명의 고용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 ③ 관광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측된다.

2 새로운 시점과 사고방법

- ① 부흥에 있어서는,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생각 하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관광지의 수용력 등 관광에 기인하는 여러 과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는 궁리가 요구되고 있다.
- ②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동제한 하에서 인근 관광지와 그 지역 특유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수 증가라는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 환경자원 보전과 활용의 양립, 관광 개발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의 조화를 도모함을 지향한다.
- ③ 관광 산업은 관광객과 지역 사회 사이에서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 관계여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도 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 산업에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에비던스에 근거한 관광지 경영 촉진이나 디지털 기술 도입, 관광객이 갖고 있어야 할 책임 의식과 행동에 관한 계발 등이 행해지고 있다.
- ④ 또한 관광지에서 적절한 감염증 대책 등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 리스크가 낮은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의 혼잡 회피에 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3. 대처의 방향성

- ① 도시는 관광 산업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 ② 관광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이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헌의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등에 의해, 지역의 관광 관계자가 제휴하여, 부하 경감과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또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실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의 변혁이나, 수요의 창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에 더해, 책임 있는 관광의 추진에도 임할 필요가 있다.
- ④ 도시는 관광에 관련하는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안전, 안심하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Mr. Bruno Dercon

Senior Human Settlement Officer,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목적별 세션



유엔 해비타트 세션

테마 : COVID-19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 자치체 리뷰 (VLR)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인가?

■ 사회 Bruno Dercon, Senior Human Settlement Officer,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 인사 Koresawa Atsushi, Regional Representative,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Mitsuyama Hiroaki, Deputy Mayor of Fukuoka City

■ 기조강연 I Martino Miraglia, Human Settlement Officer and SDG Localization, UN-Habitat

■ 기조강연 I

지금 SDGs를 어떻게 현지화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지화란 SDGs의 추진에 관해서, 지역이 국가와 연결되면서 지역이 나라의 테두리와 연계하되, 지역 커뮤니티의 우선 순위에 근거해서, SDGs를 달성해 가는 프로세스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VLR입니다만, 이것은 자치체마다 SDGs의 진척을 모니터링, 보고해 가는 것으로, 먼저 자주적인 국가 리뷰(VNR)가 있고, VNR을 보완하는 역할로 탄생했습니다. VLR에 참가하는 자치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39단체였지만, 2021년 4월에는 69단체, 2021년 말까지에는 90단체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VLR에는 감시·모니터링·보고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VLR을 통해, 정치적 대화 속에 자치체가 참가한다, 혹은 소수민족 등 소수파까지 포함한 커뮤니티를 의사결정에 참가시킨다, 자치체의 예산확보의 근거로 한다, 자치체의 정책에 일관

성을 갖게 한다,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이 연계하여, 조사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VLR과 VNR이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이 건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VNR에는 VLR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VNR 책정에 VLR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지표를 유형화한 「데이터 이노베이션」이나, 도시·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감시·모니터링·보고·장기적 계획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정리한 「글로벌 도시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여, SDGs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artino Miraglia

Human Settlement Officer
and SDG Localization,
UN-Habitat

■ 기조강연 II

UNESCAP와 유엔 해비타트는 긴밀히 제휴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VLR 전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SDGs의 진척은 늦었으며, 특히 목표 11은 개선이 필요하고, 도시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UNESCAP은 2019년에 페낭 플랫폼을 출범시켰는데, 이를 시작으로 많은 대처가 진행되며, 2020년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이드 라인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유엔 해비타트, UNESCAP, 페낭 플랫폼의 멤버가 중심이 되어, UNDP, UCLG, ASPAC와 같은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에 따른 가이드 라인이 각 지역에서 책정되어, VLR과 VNR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VLR을 실행하려면 체제 정비, 데이터 수집,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고, 공통지표 설정이나, 이해 관계자의 관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동이 후속 조치의 강화에 이어지고, VLR에 탄력이 붙습니다.

또한 UNESCAP과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에 있어서의 도시 경제 강인화 프로젝트」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자의 관여, 장기적 계획, 지간의 공유, 증거의 입수, 모니터링 등 VLR와 비슷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유엔에서는,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있어서, 「보다 낫게 회복하자.(Built Back Better)」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VLR을 활용하르로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Curt Garrigan

Chie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ecti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VLR에 관한 Hands on guidance

「2030 어젠다」는 국가 및 자치체가 SDGs의 진척을 정기적으로도, 포괄적으로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 4개 자치체가 VLR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기타큐슈시, 도야마시, 시모카와쵸입니다. IGES는 이 중 3개 도시의 VLR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SDGs 목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도시가 VLR을 작성하는 데는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정책 입안에 반영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끌어들이는 가운데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스스로의 현상과 과제를 진단해 현치화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데이터에 근거한 적절한 행동계획의 책정을 할 수 있는 것, 글로벌한 논의에 포함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VLR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방금 소개한 시모카와쵸는 홋카이도의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만, 그 대처의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선 예비단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은 기존 정책이나 행동계획과도 정합성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기존 전략이 있는가, 그것이 SDGs의 어떤 목표에 공헌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시점에서 SDGs의 진척 상황은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계획을 재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2030년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VLR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Fernando Ortiz-Moya

Policy Researcher,
City Task Forc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 사례 연구

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도시가「SDGs City Roadmap」을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SDGs의 현지화에 임하는 것으로「New Urban Agenda」의 실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로컬 레벨의 대처는 글로벌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도 연결됩니다. 또, 이 로드맵에 의해서 자금 조달의 합의 형성도 용이해졌습니다.

SDGs의 추진에는 3가지의 중요한 아웃컴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포섭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 다음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DGs City Roadmap」의 책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어떤 타임 라인으로 진행할 것인가,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VLR은 국가와 지역에서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VLR의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에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나 도시와도 공통된 방법으로 VLR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하이레벨 정치 포럼에서 말레이시아의 VNR에 맞춰 VLR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SDGs에 관해 지역의 독자적인 지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표 도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도시, 농촌 쌍방에서 저탄소 도시, 스마트 시티와 같은 대처에 사용되고 있으며, VLR의 가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도시가「SDGs City Roadmap」을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SDGs의 현지화에 임하는 것으로「New Urban Agenda」의 실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로컬 레벨의 대처는 글로벌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도 연결됩니다. 또, 이 로드맵에 의해서 자금 조달의 합의 형성도 용이해졌습니다.

SDGs의 추진에는 3가지의 중요한 아웃컴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포섭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 다음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DGs City Roadmap」의 책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어떤 타임 라인으로 진행할 것인가,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VLR은 국가와 지역에서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VLR의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에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조직이나 도시와도 공통된 방법으로 VLR을 실시하는 것을 중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하이레벨 정치 포럼에서 말레이시아의 VNR에 맞춰 VLR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SDGs에 관해 지역의 독자적인 지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표 도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도시, 농촌 쌍방에서 저탄소 도시, 스마트 시티와 같은 대처에 사용되고 있으며, VLR의 가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식 세션 I 규슈대학 세션

■ 인사 Ishibashi Tatsuro President of Kyushu University

■ 규슈대학 소개

규슈대학을 대표하는 6명의 교수진이 서미트 분과회 주제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소개.

1. 지속 가능성의 측정

Managi Shunsuke, Director and Distinguished Professor, Urban Institute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

Andrew Chapman, Associate Profess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rbon Neutral Energy Research

3. ICT를 이용한 국제간 원격 의료 교육

Kudo Kuriko, Assistant Professor, Telemedicine Development Center of Asia

4. 생태 건축, 에너지 절약 건축의 기능 디자인

Ozaki Akihito, Dean and Professor, Faculty of Human-Environment Studies

5. 아시아 지역에서의 방재 · 감재 연구

Mitani Yasuhiro, Professor, Asian Disaster Risk Reduction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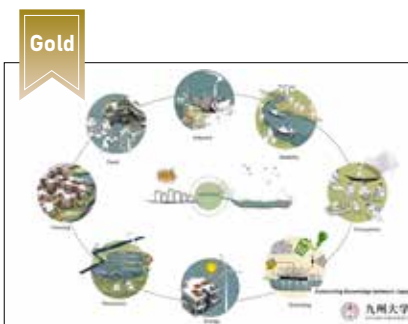
6. 유학 프로그램 등에 의한 국제 교육의 추진

Kinoshita Hiroko, Associate Professor,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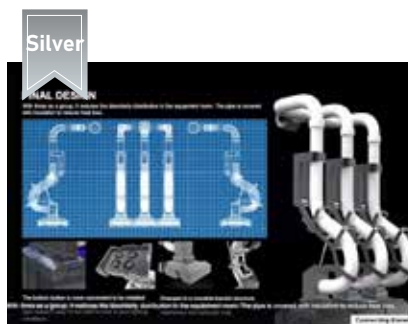
■ 규슈대학 SDGs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 2021 수상자 프레젠테이션

규슈대학 SDGs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의 힘으로 SDGs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젊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표창하고, 그 들이 만들어낸 해결책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보다 나은 사회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회 올해의 어워드는 「탄소 중립한 사회를 만들자」를 주제로 세계에서 디자인을 모집해, 총8개 팀이 수상했다.



"Rejuvenating the Edge"

Taorem Rahul Singha
(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 Technology)



"Data Center Energy Recovery Program"

Nie Qijun (Royal College of Art)



"Accum Land"

Bian Yihan, Chen Lianyi, Chu Lijun and Liu Chunchen
(Royal College of Art)

지식 세션 II OECD세션

테마 : 「재건 · 부흥 · 강인화 : 미래를 위한 포섭적인 도시 만들기
COVID-19의 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사회 Sena Segbedzi, Coordinator,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 OECD

■ 개회사 Takashima Soichiro, Mayor of Fukuoka City

■ OECD 발표

코로나 사태는 리먼 쇼크를 넘는 심각한 영향을 세계에 주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 따라 상황은 다르고, 예를 들면 일본의 성장률은 2.5%, 오스트레일리아는 4%, 중국은 8.5%와 같이, 국가간에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각국 및 지역에 따라, 위기 대응과 회복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요인입니다.

OECD에서는 챔피언 메이어즈의 틀을 활용해 세계 100개 도시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각 도시가 코로나 사태로 어떤 정책,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국가 차원의 회복은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에서 성장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시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과 파리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100킬로미터가 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 대중교통기관의 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산호세와 코스타리

카에서는 위험한 교차로를 해소하는 등 공리를 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을 녹화하여, 정원이나 쉼터를 마련한 도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에서 이전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팬 등에서는 공업지역 건축 제한 철폐나 시가지를 분단하던 책 등의 제거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밀라노, 도쿄 등에서는 혼잡시의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치체가 인센티브를 주고 원격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들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Juliette Jestin

Policy Analyst,
Champions Mayors Group,
OECD

■ 도시 발표

시장이 된 저는 브라티슬라바를 시대에 맞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의 입안과 신뢰관계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좋은 도시 운영에는 좋은 행정체와 의회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어, 그 다음에 계획 실행으로 연결시켜 나갔습니다. 그 후 펜더믹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면에서 리더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 없느냐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PCR 검사를 받아도, 결과 판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현재는 검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 운영에 대한 신뢰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 ·

안심을 제공하여, 락다운 시에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때야말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호기입니다. 다른 유럽 도시와도 연계해, 배움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세계 20개 도시의 수장이 논의하고, 분단의 유럽, 분단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펜더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세계 분단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지금 당장 맞서야 합니다. 도시와 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tus Vallo

Mayor of Bratislava
슬로바키아

■ 도시 발표

타르라크주에서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긴급 대응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으로 락다운 시에는 다양한 물자를 배급했습니다.

코로나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보호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내의 병원에 의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대응, 13,000명에게 식량 공급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 못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들한테는 학습용 모듈을 제공하여, 코로나 사태에서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르라크주에서는 앱을 활용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접촉자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은 주의 데이터베이스로서도 기능하고 있고, 백신 접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 건물에 비접촉으로 출입하기 위한 앱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시내에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웹사이트에서 사람의 이동을 체크할 수 있는 앱으로, 양성자가 외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사이트에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병원 이용이나 지불에 관한 앱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서비스가

감염 확대 방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shna V. Buenaventura
Provincial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r
Province of Tarlac
필리핀

이번 코로나 사태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렌체 관광객은 70% 이상 감소했고, 토스카나 주에서는 6만명이 새로 빈곤층에 빠졌습니다. 느긋하게 있을 틈 없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뚝뚝 뭉쳐서, 새로운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부에 대체 교통을 도입, 녹지 설치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진흥 캠페인을 실시해, 88%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한 것 외, 이 코로나 사태로 큰 영향을 받은 젊은 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펜더믹은 공중 위생 시스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통감시켰고, 동시에 안타깝게도 사회적 격차를 넓혔습니다. 우리는 시민에 대한 공

공 서비스를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중 위생이나 복지를 확실하게 충실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피렌체에서는 펜더믹으로 실직하고 곤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택 제공과 취직·전직 지원 등 구체적인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공영 주택 건설과 피렌체의 큰 관광 자원인 역사지구 보전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ra Funaro
Deputy Mayor of Florence
이탈리아

빌바오시는 코로나 사태를 넘어, 보다 강한 도시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디지털 이노베이션, 사회 분단,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그 가운데 혁신성, 포섭성, 지속 가능성,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도시계획의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도시에서 얼마나 질 높은 생활을 보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책정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의 2021년 예산은 코로나 대응에 많이 투입되었지만, 경제·고용·문화·사회와 같은 기존 분야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분단·분리를 수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에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처는 빌바오 단독이 아니고,

멀티 레벨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민 공동으로 책정된 「common vision」에 근거해, 추진됩니다. 비전에는 변혁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바스크 지역 전체의 성장이라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사항이 무엇인가를 재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략과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stibaliz Luengo
Director of Internationalisation,
Bilbao
스페인



日本の新たな価値を生み出す、
共創・情報発信スペース



NIPPON GALLERY

TABIDO MARUNOUCHI



日本の魅力を、共に探る

Explore the beauty of Japan together

日本全国の文化や自然をはじめ、
食や工芸、風習にやどる伝統的な技術と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の融合。
超高精細映像によるサイネージやデジタルジオラマ、VRシアター、
壁面全体をディスプレイで構成したプレゼンテーションルームなど、
各ゾーンでさまざまな日本の魅力を体感できます。

This area fuses digital technology with culture, nature, cuisine, crafts,
and techniques inherent to traditions from every region of Japan.
Visitors can experience the appeal of various elements of Japan
and engage in creation in clearly divided zones that include signage and
digital dioramas using high-definition imagery,
a VR Theater, and a presentation room with a full-wall display.

TOPPAN



클로징 세션

클로징 세션

■ 회의 총괄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이 2021년 10월 26일, 27일 양일간, 국제연합 인간거주계획(유엔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와 후쿠오카시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처음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어, 과거 최대인 세계 18개국, 40개 도시가 참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전대미문의 위기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는 의료, 경제, 교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맞서게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는 이 위기를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로 전환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지금까지 4반세기에 걸쳐 상부상조, 호혜의 정신으로 구축해 온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의 도시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13차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을 올해와 내년, 두 차례 개최하고, 시대 전환기에서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13차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에서는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을 주제로 현재 진행형의 도시 과제를 다루어, 박진감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또한 도시 이외에도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혜의 집결이 도모되어, 내년 회의를 향한 과제의 추출 및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주민의 모든 층에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주민과 가장 밀착된 시책을 짚어낸 도시의 책임은 무겁고, 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래를 향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혁신적인 발상이나 기술,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재발견과 재구축이 효과적이라는 인식도 공유했다.

게다가 경제 합리성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 포섭성, 다양성과 같은 SDGs의 추진

과, 주민의 웰빙에 공헌해 나가는 시각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 진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온 가치관이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의 대전환기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결의한 바이다.

회의의 폐회에 있어서, 이번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Koresawa Atsushi

Regional Representative,
UN-Habitat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트의 성과를 확실한 것으로 하고, 내년 회의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APCS Commitment to 2022」로 표명한다.

1. 아시아 태평양 도시는 현재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이 키워 온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
2. 아시아 태평양 도시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에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을 각 도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3. 아시아 태평양 도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성과를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에서 제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발전에 기여한다.
4. 다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도시로 New Values-New Cities」를 주제로, 2022년 여름 일본·후쿠오카에서 개최한다.

■ 폐회 인사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 폐회를 앞두고, 주최자를 대표해서, 인사 드립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 주신 유엔 해비타트의 Sharif 사무국장님, 강연을 해 주신 유엔 해비타트의 Tuts 디렉터와 유엔 환경 계획의 Tsering 사무소장님, OECD의 Akhmouch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서밋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이를 동안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을 전체 주제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역대 최대인 세계 18개국 40개 도시의 대표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와 대학교, 기업체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다종다양한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매우 귀하고 자극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각각의 현장에서의 실체함에 근거한 의견은 매우 절실하고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를 가슴에 와닿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간에 걸친 서밋을 통해, 앞으로의 도시 부흥과 성장을 위한 세계기준의 중요한 요소로서 「SDGs」와 「웰빙」 「그린 리커버리」와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 도시는 향후,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정책이나 도시 만들기에 내포시켜 가는 것이 요구되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commitment」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서밋에서 얻은 지견이나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활용해,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연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서밋을 거쳐, 새로운 가치관 아래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다음 서밋에서 그 실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Takashima Soichiro

Mayor of Fukuoka City

다음 서밋는 2022년 여름에 후쿠오카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서밋에 앞서 5월에는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등, 내년은 국제 교류의 재시작을 하는 중요한 해가 된다고 봅니다. 2022년에는 이곳 후쿠오카에서, 이번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이 아니라, face-to-face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가도시대표자



중국
다렌시

Fang Tielin
Vice Mayo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시

Nasruddin Djoko Surjono
Head of the Regional Planning
Board of Jakarta



중국
광저우시

Wen Guohui
Mayor



일본
후쿠오카시

Takashima Soichiro
Mayor



중국
구이양시

Liu Lan
Vice Mayor



일본
가고시마시

Shimozuru Takao
Mayor



중국
타이위안시

Aijun Chen
Deputy Secretary
General



일본
기타큐슈시

Umemoto Kazuhide
Deputy Mayor



중국
타이저우시

Wan Wenhua
Mayor



일본
구마모토시

Onishi Kazufumi
Mayor

참가도시대표자



일본
미야자키시

Kono Taro
Vice Mayor



말레이시아
이포시

TPr. Tuan Haji Mohd Zainal
bin Abdul Hamid
Director of Town Planning
Department Ipoh City Council



일본
나가사키시

Taue Tomihisa
Mayor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Bill Cashmore
Deputy Mayor



일본
오이타시

Kudo Akira
Deputy Mayor



필리핀
타를라크주

Susan A. Yap
Governor



일본
사가시

Ito Hiromi
Deputy Mayor



대한민국
군산시

Kang Im June
Mayor



라오스
비엔티안시

Phoukhong Bannavong
Vice Mayor



대한민국
포항시

Lee Kang-deok
Mayor

참가도시대표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Zhuravel Yurii
Grigorievich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두바이시
아랍 수장국 연방

Dawoud Abdul Rahman
Al Hajri
Director General



싱가포르

Eng Kian Ong
Director, Centre for
Liveable Cities



베트남
다낭시

Chinh Trung Le
Chairman



태국
첸마이시

Vorapan
Suvonthanatip
Advisor to the Mayor



베트남
하이퐁시

Tuan Anh Nguyen
Director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태국
푸켓시

Onphailin
Trakoonpariphon
Deputy Mayor

사이드 이벤트

● 1일차 : 10월26일(화) 17:30~18:45

후쿠오카 외국인 학생 지원회 (공재)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 주최

「유학생을 위한 창업, 취업 활동 토크 세션 2021」

후쿠오카에서 유학생부터 창업한 기업가와 스타트업 기업에서 활약하는 외국인을 초대, 공개토론 · 의견 교환회를 개최



● 2일차 : 10월27일(수) 11:00~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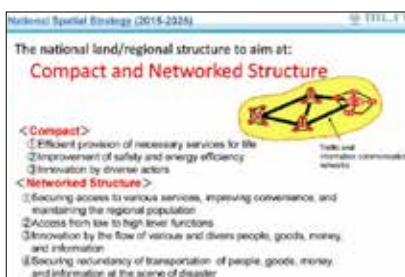
국토교통성 주최

「일본과 아시아의 국토의 장기 전망」

세션1 : 일극 집중의 시정을 지향하는 국토 · 지역의 장기 전망 (국토교통성)

세션2 : 다양한 주체의 참가에 의한 지방 핵심 도시의 전략적인 장기 전망 (도쿄대학 준교수 Seta Fumihiko)

세션3 : 아시아의 도시 과제를 해결하는 「질 높은 인프라」



사이드 이벤트

● 2일차 : 10월 27일(수) 12:30~13:50

세계은행 동경개발 러닝 센터 주최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도시 만들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만들기에 관한 일본 국내외 자치체의 우수한 사례를 골라서, 거기서 진행되는 주민 연계의 장면에 대해 소개.



● 2일차 : 10월27일(수) 14:00~15:00

후쿠오카시 주최

「후쿠오카 방식이란 ~저가격으로 친환경 매립 기술~」

해외로 기술 이전이 진행되는 폐기물 매립 방식 "후쿠오카 방식" 그 효과와 메커니즘, 그리고 해외에서의 실적과 평가에 대해,

연구의 제1인자와 국제기관의 전문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례와 경험을 바



관련사업

● 게스트 티처(온라인) 실시일:9월21일

후쿠오카시립 시로하마 초등학교 4, 5, 6학년생한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



【사진협력: 후쿠오카시립 시로하마 초등학교】

● 학교급식 실행일 : 10월21일, 22일(후쿠오카시내 중학교), 10월26일, 27일 (후쿠오카시내 초등학교)

후쿠오카시내의 초, 중학교에서 도시 서밋 회원도시와 관련된 서밋 특별 급식을 실시



【사진협력:후쿠오카시립 모토오카 중학교, 후쿠오카시립 다카토리 초등학교】

● 게시, 배포물



참고자료

•

회원도시

15개국 32도시 (2021년 12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시

캄보디아

프놈펜

중국

창사시

다롄시

광저우시

홍콩 특별 행정구

상하이시

우루무치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시

일본

후쿠오카시

가고시마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미야자키시

나가사키시

나하시

오이타시

사가시

말레이시아

이포시

쿠알라룸푸르시

미얀마

양곤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필리핀

마닐라시

한국

부산 광역시

광양시

제주 특별 자치도

포항시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태국

방콕도

미국

호놀룰루시

베트남

호치민시

아시아 태평양 서밋 실시 상황

시장회의

개최지	개최일	전체 회의 주제	참가 도시
제1회 후쿠오카시	1994. 9.22~9.25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시 발전과 인간 거주 환경과의 조화	11개국 지역 21도시
제2회 광저우시	1996. 9.27~10.1	21세기의 도시의 발전	11개국 지역 20도시
제3회 후쿠오카시	1998. 7.11~7.13	도시 연계의 장래 전망	11개국 지역 23도시
제4회 부산광역시	2000. 5.13~5.15	새 천년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의 경제 발전	12개국 지역 23도시
제 5회 후쿠오카시	2002. 8.30~9.1	21세기형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12개국 지역 24도시
제6회 방콕도	2004. 11.30~12.2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새로운 어프로치	10개국 지역 14도시
제7회 우루무치시	2006. 8.8~8.10	조화된 도시 발전	6개국 지역 14도시
제8회 다렌시	2008. 9.28~9.30	아시아 태평양 선진 도시 ~환경, 자원, 문화 및 산업에 관한 새로운 사고~	11개국 지역 34도시
제9회 블라디보스톡 시	2010. 9.30~10.1	지속 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도시의 발전 ~세계적 경제 위기하에서의 새로운 도시 정책~	6개국 지역 13도시
제10회 포항시	2012. 7.26~7.28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 정책과 도시간 연계	10개국 지역 23도시
제11회 구마모토시	2013. 10.31~11.2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안심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도시 만들기~	13개국 지역 24도시
제12회 후쿠오카시	2018. 8.1~8.3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기	16개국 지역 32도시
제13회 특별 판 후쿠오카시 (온라인)	2021. 10.26~10.27	위기에서 생겨난 도시의 가능성	18개국 지역 40도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규약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이 조직의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영문명 Asian-Pacific City Summit 이하 「도시 서밋」라고 함) 라고 한다.

(목적)

제2조 도시 서밋은 도시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도시가 도시 연계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층 더 발전과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사업)

제3조 도시 서밋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 (1) 시장 회의 개최
- (2) 실무자 회의 개최
- (3) 기타, 도시 서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도시

(회원 도시)

제4조 도시 서밋의 회원도시는 별표와 같이 한다.

(대표자)

제5조 회원도시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시장 상당직으로 한다.

(가입)

제6조 도시 서밋에 새로 가입하려는 도시는 문서로 사무국에 신청한다.

- 2 사무국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시장 회의에부의한다.
- 3 회원 자격은 시장 회의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탈퇴)

제7조 회원도시는 사무국에 탈퇴를 문서로 신고하므로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의 효력은 사무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3 회원 도시는 도시 서밋을 탈퇴한 경우에도 이 규약에 근거하여 탈퇴하기전에 맡은 의무에 대해서는,
탈퇴한 후에도 성실하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시장 회의

(시장 회의)

제8조 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개최한다.

- 2 시장 회의는 개최 도시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구성)

제9조 시장 회의는 회원 도시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2 시장 회의에는 회원도시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자 본인이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도시는 대표자가 다른 자에게 권한을 위양 하고 출석시킬 수 있다.
- 3 회원도시 이외의 도시라도 회원 도시의 소개에 의하여 옵서버로서 시장 회
의를 방청할 수 있다.

(권한)

제10조 시장 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규약의 개폐
- (2) 신규 가입의 승인
- (3) 시장 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개최도시 결정
- (4) 기타, 도시 서밋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의장)

제11조 시장 회의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개최 도시의 대표자가 담당한다.

(정족수 및 의결 방법)

제12조 시장 회의의 정족수는 전 회원 도시의 2분의 1로 한다.

- 2 시장 회의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회원 도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한다.

(경비)

제13조 시장 회의 개최에 관한 경비는 개최 도시의 부담으로 한다.

- 2 시장 회의 출석에 관련된 경비(도항비 및 체재비)는 출석 도시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개최도시가 그 판단에 의해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하다.

(개최 도시의 결정)

제14조 시장 회의의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 도시는 사무국에 신청한다.

2 사무국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리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시장 회의에 부의한다.

제4장 실무자 회의

(실무자 회의)

제15조 실무자 회의는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개최한다.

2 실무자 회의는 개최 도시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구성)

제16조 실무자 회의는 회원 도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2 회원 도시 이외의 도시라도 회원의 소개에 의하여, 옵서버로서 실무자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권한)

제17조 실무자 회의는 시장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를 한다.

2 실무자 회의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실무자 회의의 개최 도시가 시장 회의에 보고한다.

(의장)

제18조 실무자 회의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개최 도시가 선출하는 자가 담당한다.

(경비)

제19조 실무자 회의에 관한 경비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최 도시의 결정)

제20조 실무자 회의의 개최 도시 결정에 관해서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무국

(사무국)

제21조 도시 서미트의 사무국은 후쿠오카시에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요하는 경비는 후쿠오카시가 부담한다.

3 사무국은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도시간의 연락 및 조정

(2) 시장 회의, 실무자 회의, 기타 도시 서미트의 사업에 관한 연락, 조정 및 지원

(3) 각종 회의의 기록이나 도시 서미트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보관 및 제공

(4) 도시 서미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기타, 도시 서미트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쿠오카시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오클랜드시 (뉴질랜드)

방콕 (타이왕국)

브리즈번시 (오스트레일리아연방)

부산 광역시 (대한민국)

창사시 (중화인민공화국)

다렌시 (중화인민공화국)

후쿠오카시 (일본국)

광저우시 (중화인민공화국)

광양시 (대한민국)

호치민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호놀룰루시 (미합중국)

이포시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특별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주 특별 자치도 (대한민국)

가고시마시 (일본국)

기타큐슈시 (일본국)

쿠알라룸푸루 (말레이시아)

구마모토시 (일본국)

마닐라시 (필리핀 공화국)

미야자키시 (일본국)

나가사키시 (일본국)

나하시 (일본국)

오이타시 (일본국)

프놈펜도 (캄보디아 왕국)

포항시 (대한민국)

사가시 (일본국)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화국)

우루무치시 (중화인민공화국)

블라디보스톡시 (러시아 연방)

양곤시 (미얀마 연방 공화국)

Kubota



JFE Engineering Corporation

TOPPAN

HITACHI
Inspire the Next



TAISEI KANRI KAIHATSU

Maezawa
Industries, Inc.



FUKUOKA KANKYOU SEIBI

SEIKO
ELECTRIC



KYUSHU RAILWAY COMPANY



THE BANK OF FUKUOKA, LTD.

SAIBU GAS GROUP



THE NISHI-NIPPON CITY BANK



Sumitomo Corporation Kyushu Co., Ltd.



Sojitz Kyushu Corporation



Groovenauts



FUKUOKA JISHO CO., LTD.

The 13th Asian-Pacific City Summit Special Edition

26-27 October 2021 Fukuoka, Japan



UN HABITAT
FOR A BETTER URBAN FUTURE

福岡市
FUKUOKA C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lan-Pacific
City Summit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특별판 보고서 2022년 2월 발행

편집·발행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 사무국

Asian-Pacific City Summit Secretariat

〒 810-8620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1-8-1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내

TEL:092-711-4028

FAX:0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s://apcs.city.fukuoka.lg.jp/>